

# 茶山 漢詩의 寫實性 研究

— 「田間紀事」를 중심으로 —

韓 昌 勳 \*

目 次

I. 序 論	1. 인물과 환경의 典型性
II. 茶山의 文學思想	2. 묘사의 디테일성
1. 應事接物 觀點에서의 文以載道論	3. 「田間紀事」의 주제적 고찰
2. 風의 재개념화를 통한 詩經論	IV. 結 論
III. 「田間紀事」의 寫實性	(참고 문헌)

## I. 序 論

茶山 丁若鏞(1762~1836)은 實學을 집대성한 大學者로 평가되는 한편 조선 후기 한국사상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다. 그가 남긴 방대한 文集 「與猶堂全書」를 통해 우리는 정치, 경제, 법률, 지리, 경학, 언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탁월한 사상가로서의 茶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2,500여수의 주옥같은 文章으로 이름이 높았던 燕巖 朴趾源과 더불어 實學派 文學을 대표하는 詩人으로서도 주목되었다.

茶山의 漢詩는 그 방대한 분량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뛰어난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文學 특히 漢詩에 대한 연구는 흥이섭에 의한 연구 필요성

---

\* 국어교육과 4학년

언급<sup>1)</sup>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번역되고 연구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茶山 漢詩의 특징은 그의 實學思想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實學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經世致用·利用厚生·實事求是 세 유파로 나누어 진다.<sup>2)</sup> 일찍이 星湖 李瀾의 유고를 통해 實學에 눈뜨기 시작한 茶山은 인맥으로는 經世致用派에 속한다고 하겠으나, 이후에 利用厚生派와의 교류, 여러 經學書에 대한 實事求是的 研究 등을 통해 실학의 3개 유파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를 실학의 집대성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실학자로서의 茶山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흔히 '社會詩'라는 명칭하에 분류되는 일군의 漢詩<sup>3)</sup>들이며, 이들은 항상 국가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작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茶山의 '社會詩'들은 그의 현실관 내지 세계관을 뚜렷이 담고 있는데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른 일반의 漢詩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즉 「詩經」을 전범으로 한 詩經體의 형식과 인물과 행동이 나타나는 서사적 내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茶山 漢詩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連詩 「田間紀事」 6수이다.

「田間紀事」는 茶山의 康津流配 시절에 쓰여진 연시 형태의 작품으로, 그의 '詩經論'과 시의식 및 시적 실천이 모두 집약된 하나의 상징적 전형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 먼저 '詩經論'을 포함한 茶山의 文學思想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작품분석에서는 '사실성'의 구현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田間紀事」는 詩經體의 형식과 서사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茶山 漢詩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구명하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작가의 문학적 관심이 작품에 얼마만큼 투영

1) 洪以燮, "丁若鏞의 政治·經濟 思想 研究", 韓國研究圖書館, 1959.

2) 이우성, '실학연구서설',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2. 참조.

3) 여기서 말하는 '社會詩'는 제재면에서 사회문제를 다룬 시를 지칭한다. 茶山詩의 분류는 연구자들에 의해 통일된 것이 없는데, 전체를 포함하고 일정한 기준의 효율적 분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되어 형상화될 수 있는가 하는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I. 茶山의 文學思想

문학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문학 특히, 詩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잘 나타내는 형태라는 기본적인 인식에 동감한다면, 일차적 연구로서 작가의 文學思想的인 면을 검토함을 당연하고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茶山의 경우 '조선시 선언'<sup>4)</sup>을 비롯한 독특하고 주체적인 문학정신으로 하여 그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여기서는 작품 「田間紀事」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詩經論」을 중심으로 그의 文學思想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應事接物 관점에서의 文以載道論

조선 사회는 한 마디로 性理學的 질서하의 사회라 할 수 있다. 원래 성리학이란 주로 철학적인 문제를 관심의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조선조의 성리학은 단순히 철학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중세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 실학은 본래 이러한 성리학적 사회질서의 반발로 시작된 것이나, 그 사회질서 및 세계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茶山의 「田間紀事」의 사실성을 구명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처럼 中世와 近代의 가교적인 역할은 茶山의 文學觀에도 드러나고 있다.

모든 문학이론의 근저에는 그 전체를 지탱하는 문학관·인간관이 전제된다. 茶山의 경우 이는 「詩言志」, 「文以載道」라는 정통적 명제속에 집약된다.

文은 道를 실는 것이고 詩는 志를 말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도가 세상을 바로잡고 구제하기에 부족하고 그 뜻이 텅비어 세운 바가 없으면 비록 그것이 야단

4) 송재소, 「茶山詩 研究」, 창작과 비평사, 1986, pp. 33~47

김상홍, 「茶山 丁若鏞 文學研究」, 단국대 출판부, 1985, pp. 55~63 참조.

스럽고 詩가 아름답더라도 이는 빈 수레를 몰면서 소리를 내는 격이고 광대가 풍월을 말하는 것과 같으니 이를 어찌 傳할 수 있겠는가?’<sup>5)</sup>

위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茶山에게 있어 詩와 文 즉, 文學은 그 상위의 가치인 道와 志에 종속된다. 즉 그는 정통적인 성리학적 문학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통 성리학자들과 실학자로서의 茶山の 가장 큰 차이점은 ‘文以載道’에서의 道의 개념이 어떠한가에 있다.

성리학에 있어서 道는 天理를 가리키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의 수양이 중시되며 더불어 학문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治心·正心を 전제로 하지 않고 文學을 하는 사람은 허술해지기 마련이라 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성리학자들의 漢詩는 관념적이고 사실성이나 사회성이 거세되어 있다.

그러나 茶山은 道의 체득과정에 대한 인식이 이와 다르다. 그에 의하면 應事接物함으로써만 마음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 여기서의 事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딪치는 것들이며 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일체의 대상을 가리킨다. 이때의 物은 자연물일 수도 있고 당시의 사회제도일 수도 있다.

그의 ‘물에 접한 후에 경이라는 명칭이 생기고 일에 옹한 후에 의라는 명칭이 확립되는 것이니 접하지 않고 옹하지 않으면 경과 의가 있을 수 없다’<sup>6)</sup>는 말은 應事接物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茶山은 理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主氣論的 입장에 있었던 것 같으며 經學에서도 이에 대응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 그의 새로운 ‘詩經論’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8C 후반과 19C 초 조선조 사회의 제도적 모순을 유배지에서 應事接物하게 된 茶山은 각종 제도가 잘못됨으로써 빚어진 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농민들의 토지상실과 궁핍한 생활임을 직시하고 이를 ‘田間紀事’ 등의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고발, 이의 대책을 무언중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작품의 성격과 함께 그의 作詩태도를 잘 보여준다.

5) ‘西園遺稿序’中 ‘文所以載道 詩言志者也 故其道不足以匡濟一世而其志枵然無所立者 雖其文嘍轟轟放 而詩藻麗 是猶驅空車以作 聲而倡優談風月也 何足傳哉.’

6) ‘大學公議’中 ‘接物而後 敬之名生焉 應事而後 義之名立焉 不接不應 無以爲敬義也.’

## 2. 風의 재개념화를 통한 詩經論

茶山은 앞서 논의된 '應事接物' 관점에서의 文以載道'로서의 文學觀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그의 이러한 생각은 48세때 正祖에게 올린 '詩經講義'에서 구체적 일면을 보인다. 茶山은 詩의 전범을 「詩經」으로 인식하였다. 「詩經」의 의의가 단순하고 소박한 언어와 절제된 형식과 고담질박한 감수성의 전범이었으며, 의식의 측면에서는 인륜을 선양하고 우세홀민하였으며 당대의 현실을 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경학에 조예가 깊어서 여러 經書에 대해 광범한 고증적 탐구와 절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 성과의 일부인 '詩經論'은 그릇된 사회정치적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비판의 언어로서 시의 존재 의의를 설명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茶山은 「詩經」이 주희가 말하듯 감화의 자료로서 성립된, 따라서 도덕적 悖亂과 악을 담고 있기도 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와 달리 그는 「詩經」의 작품들이 이른바 變詩이건 正詩이건, 風이건 雅·頌이건 모두 도덕적 정치적 당위의 실현을 향한 능동적 의식의 소산이라고 보았다.<sup>7)</sup>

「詩經」의 이해와 주자說에 대한 체계적 비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풍에서의 소위 風의 의미였다. 주자는 風을 민속가요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해석은 「詩經」의 詩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茶山은 風을 하나는 교화한다는 뜻, 또 하나는 풍자한다는 뜻 두가지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風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두가지 음이 있으니, 그들이 가리키는 바는 아주 달라서 서로 넘나들 수 없다. 위에서 풍으로 아래를 교화시키는 것은 風敎이며 風化이며 風俗이니, 그 음은 平聲이 된다. 아래에서 풍으로 위를 찌르는 것은 風諫이며 風刺요 風喻이니, 그 음은 去聲이 된다.<sup>8)</sup>

위 내용은 한마디로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이라 할 수 있다. 즉 茶山은

7) 김홍규, "朝鮮後期の 詩經論과 詩意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p. 194 참조.

8) '詩經講義'中 '風有二義 亦有二音 指趣迥別 不能相通 上以 風化下者 風敎也 風化也 風俗也 其音爲平聲 下以風刺上者 風諫也 風刺也 風喻也 其音爲去聲'

「詩經」을 정치사회의 비판적 언어로서 중시하여 上以風化下의 교화론적 도구로서가 아니라 下以風刺上의 비판적 언어로서 파악한 것이다. 그리하여 詩를 사회악에 대한 풍자와 고발을 통하여 징계의 거울로서 사회개혁의 공구로서 민중의 의사를 전달하고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기능을 중요시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詩 구도는 정치지향적인 것으로서, 사회신분상의 在下者에 의해 통치자가 풍간·비판되는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그의 '社會詩'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개인의 이해에 연유되어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술적인 개인문학을 배척하고 오로지 개인의 경험과 민중의 어려움과 현실사회를 소재로 하여 사실주의의 기법으로 공리적인 면을 추구했다. 시가 예술의 성취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사회적이고 현실적이며 공리적인 시를 쓰면서 앞서 이야기된 자신의 시론을 실천했다.

茶山이 「詩經」을 풍자의 비판적 언어로 재인식하고 이에 따라 시를 창작할 때 그 전범을 삼았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한 관찰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당대의 현실을 정확히 비판·풍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확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자연히 그의 작품에는 사실성이 구현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茶山의 「詩經」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필연적으로 그의 작품에 사실성의 구현을 이끌게 된 것이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꽃·나무·새·짐승·벌레 등 할 것 없이 모두 화법의 모리에 맞아서 섬세하고도 생동성이 강하다. 저 서투른 화가들이 모지라진 붓에다가 먹물만 듬뿍 찍어서 기괴하게 되는 대로 휘두르면서, 뜻만 그리고 형은 그리지 않고 자처하는 자들의 작품과는 대비할 바가 아니다. 운공은 언제나 나비·잠자리 같은 것들도 손에 잡아들고 그 수염, 눈썹, 털, 고운 땀시 등의 섬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 보고는 그 모양을 그리되 꼭 실물을 닮은 뒤에라야 붓을 놓았다. 이를 보더라도 그가 그림에 얼마나 정력을 들였으며 애를 썼는가를 짐작할 만 하다.<sup>9)</sup>

9) '跋翠羽帖'中 '所作花木翎毛蟲豸之屬 皆遍臻其妙 森細活動 非粗夫劣生 把斧筆瀟水墨 譯爲奇怪 以畫意不畫形 自命者所能譬比者也 尹公嘗取蛺蝶蜻蛉之屬 細視其鬚毛粉澤之微 而描其形 期於肖而後已 卽此而其精深刻苦可知也.'

이것은 운용이란 사람의 화첩에 발문으로 쓴 글인데, 대상을 '정확히 관찰하고', 그것을 '정확히 그려야 한다'는 茶山의 예술관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위에서 '뜻만 그리고 형은 그리지 않는' 화가들을 비판한 것은, 대상을 보고 느낀 작가의 생각에 따라서, 작가의 주관에 따라서 객관적인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비판한 말이다. 즉 일차적으로 사물의 정확한 관찰이 필요하며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그리려는 대상이 작가와 대립해 있는 현실의 경우, 현실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 현실의 기본적인 양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현실의 일부분만 보고서 그것을 전체로 착각하거나, 일시적인 사회현상이 자기의 생각과 우연히 일치할 때 그것을 기본적인 구조라고 주장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대상을 정확히 관찰하지 못한 셈이 된다.

요컨대 茶山은 「詩經」을 자기나름의 哲學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風의 의미를 두가지로 해석, 「詩經」의 언어를 비판적 언어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이해는 그의 시작 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나름의 독특한 '관찰문학론'을 이룩하였는데<sup>10)</sup> 이는 곧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인 사실성을 구현시키는 데 그 핵심적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 Ⅲ. 「田間紀事」의 寫實性

茶山 漢詩의 성격을 대표하는 連詩 「田間紀事」는 그가 康津에 유배되어 있던 1809년에 쓰여진 것으로 詩經體의 서사시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이 시편들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문을 적어놓아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

10) '관찰문학론'이란 용어는 김남천을 논한 김윤식의 글에서도 보이는데 '고발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그의 일련의 논의들은 茶山의 文學論과 유사한 점을 많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김윤식, "韓國近代文學思想史", 한길사, 1984, pp. 205~256 참조.

기사년에 나는 다산 초당에 머물고 있었다. 이 해에 큰 가뭄이 들어 지난해 겨울부터 봄을 거쳐 금년 입추에 이르기까지 붉은 땅이 천리에 연했다. 들에는 풀 한포기 보이지 않았고 유월초에는 유랑민들이 길을 메워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형상이어서 살 의욕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생각컨대 나는 죄를 지은 몸으로 멀리 유배된 몸이라 사람속에 끼이지도 못하는 처지였다. 오매초록 조정에 바치려 해도 방도가 없고 유민도 한 장 바칠 수 없었다. 때때로 내가 본 것을 적어서 시를 지었다. 처량한 쓰르라미나 귀뚜라미와 더불어 풀밭에서 슬피 우는 것과 같은 시들이지만, 성정의 올바른 것을 구해서 천지의 화기를 잃지 않으려 했다. 오랫동안 써 모은 것이 몇 편 되기에 이를 「전간기사」라 이름했다.<sup>11)</sup>

茶山은 유배지의 흉년을 좌시하지 않고 백성들의 참상을 4언시로 절실하게 사실적으로 그렸던 것이다. 이는 백성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동일시할 수 있었던 茶山의性情과 이를 이론적으로 받쳐주었던 '詩經論'을 중심으로 한 문학관이 합치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낙네들이 썩을 캐어 죽을 쑤어먹는 정경을 그린 '采蒿', 가뭄으로 모를 移秧할 수 없게 되자 모자리의 모를 뽑아 버리며 통곡하는 슬픔을 그린 '拔苗', 가뭄으로 논에다 메밀을 代播하라고 하면서도 메밀종자를 착복한 현령을 풍자한 '蒿麥', 보리죽을 쑤어 먹기도 어려운 흉년의 서러움을 묘사한 '熬麩', 탐관오리를 승냥이와 이리로 비유한 '豺狼', 남편은 아내를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고 떠나 버리자 어린 남매가 어머니를 찾아 방황하는 것을 그린 '有兒', 이상 6편으로 되어 있는 「田間紀事」는 시와 산문의 중간적 입장에서 인물과 사건을 지니고 있는 서사적 성격의 漢詩다.

이런 형식상 이유로 그의 시는 종래 일반의 漢詩와는 다르게 사실성의 구현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런 사실성의 기저에는 작가의 비판성과 합리성이 깔려 있다.<sup>12)</sup>

11) '己巳歲 余在茶山草薺 是歲大旱 爰自冬春 至于立秋 赤地千里 野無青草 六月之初 流民塞路 傷心慘目 如不欲生 顧負罪竄伏 未齒人類鳥味之奏無階 銀臺地圖莫獻 時記所見 綴爲詩歌 蓋與寒 帶冷 井作草間之哀 鳴要其性情之正 不失天地之和氣 久而成編 名之曰 田間紀事'

12) 비판성과 합리성은 주로 산문정신을 이루는 요소로 알려지고 있으나, 茶山의 경우 사대부라는 나뭇의 성격 때문에 그의 근대적 사상을 봉건적 장르인 漢詩를 통해 발현해야 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사실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술의 인식론이라 할 수 있다. 엥겔스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성은 '전형성'과 '묘사의 디테일성'에 의해 이루어진다.<sup>13)</sup> 이런 개념은 서구적이며, 산문에 많이 적용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문학에 있어서의 사실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사실성의 구현에 있어서 다면적이고 복잡한 현실을 전부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典型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전형적 인물, 전형적 환경의 창조를 통해 작가는 그 시대 현실의 전체적인 양상을 대표시키는 것이다. 정확한 전형을 창조한다는 말은 현실을 개괄하는 능력을 말하고, 이 능력은 현실을 정확히 관찰한 데서만 얻어질 수 있다.

묘사의 디테일성은 소재의 다양화, 다양한 시어의 구사, 서경적 묘사, 인물 성격의 묘사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런데 전형성이나 디테일성 등은 주로 산문영역에 있어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이 漢詩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리라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茶山의 다른 漢詩 즉 서정적 한시의 경우에는 그 개념의 적용이 다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田間紀事」를 포함한 서사적 漢詩 특히 詩經體의 漢詩에의 적용은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이는 앞장에서 논의되었던 작가 茶山의 탈중세적인 의식이 작품화된 것이며 산문정신의 특징으로만 보였던 비판성, 합리성 등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태도는 시, 소설 등의 형태상 특징보다는 서정, 서사 등의 내용상 특징을 더욱 주목한 결과이기도 하다. 오히려 문제는 이런 개념들이 서구적이며 근대문학을 설명하면서 나타난 것들이라는 점인데 이는 보다 성숙된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며, 사실성의 문제에 일찍부터 주목하여 나름의 성과를 이루었고 그 결과가 근자에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북한에서의 문학연구 업적도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 1. 인물과 환경의 典型性

「田間紀事」에서는 어려운 현실에 부딪쳐 고난을 겪는 농민이 그 전형적 모

13) 사회과학원, "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 발생·발전 논쟁", 사계절, 1989. 참조.

습을 그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보여 준다.

采蒿采蒿	다복쑥 캐네, 다복쑥 캐네.
匪蒿伊莠	다복쑥 아니라 새발쑥이네.
群行如羊	양떼처럼 떼를 지어
遠彼山坡	저 산등성이 넘어가네
青裙僂僂	푸른 치마 붉은 머리
紅髮俄兮	허리 굽혀 쑥을 캐네.
采蒿何爲	쑥을 캐어 무엇 하나
涕滂沱兮	눈물만 쏟아지네.
瓶無殘粟	쌀독엔 쌀 한 톨 없고
野無萌芽	들엔 벼 싹 다 말랐네.
唯蒿生之	다복쑥 캐어다가
爲穢爲糝	등글게 넓적하게
乾之蓀之	말리고 또 말려서
澹之麩之	데치고 소금 절여
我饑我粥	죽 쑤어 먹을밖엔
庶无他兮	달리 또 무얼하리. <sup>14)</sup>

3장으로 되어 있는 '采蒿'의 1장이다. 여기에 흉년을 당해 다복쑥을 캐어 연명해야 하는 당대 농민의 모습이 나물캐는 한 여인에 의해 전형화되어 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詩의 서술자가 작가가 아닌 여인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작가가 숨고 다른 이가 서술자가 됨으로써 표현의 사실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사실 「田間紀事」 전체를 통해 작가의 서술이 직접 나타나는 곳은 '有兒'의 마지막 부분 뿐이다. 이처럼 茶山은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들은 것들을 소재로 하여 詩를 쓰되 자신을 문면에 나타내지 않는 방법으로 등장인물들의 전형성을 그렸던 것이다. 이런 점은 다음 '拔苗'의 2~3장에도 잘 나타나 있다.

14) 이후의 漢詩 번역은 송재소, "茶山 詩選", 창작과 비평사, 1981.의 것을 따랐으며, 필자의 생각과 상이한 경우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有女蓬髮	붕두난발 여인 하나
箕踞田中	논바닥에 주저 앉아
放聲號咷	두른 하늘 우러러
呼彼蒼穹	대성통곡 하는 말이
忍而割恩	"차마 어이 정을 끊어
拔此稻苗	이 벗모 뽑을손가"
盛夏之月	오뉴월 한여름에
悲風蕭~	슬픈 바람 불어오네
芘~我苗	"우거진 나의 모를
予手拔之	내 손으로 뽑다니
蕪~我苗	총총한 나의 모를
予手殺之	내 손으로 뽑다니
芘~我苗	우거진 나의 모를
蕪之如莠	잡초처럼 뽑다니
蕪~我苗	총총한 나의 모를
焚之如樗	땃감처럼 태우다니"

이 역시 하늘을 원망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당대 농민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전형성이란 궁극적으로 작품의 개연성, 다른 말로 실감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술자=형상화 인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라는 전형적 인물 이외에 茶山 漢詩에서는 부패한 관리층 이른바 탐관오리의 모습이 농민들의 한탄 가운데 전형화 되기도 한다.

縣官有帖	고을 원님 칙을 내려
蒿勿汝憂	"메밀 종자 걱정 마라
我從察司	감사님께 말씀드려
將爲汝求	너희들께 구해 주리"
我信其言	우리들 그 말 믿고
既耕既耨	논 갈아 엮었더니
蒿不我予	메밀은 주지 않고

而督我尤    우리 허물 탓하면서  
 汝不播蒿    “메밀 심지 않으면  
 我則有罰    너희들께 벌 주리라  
 白楮朱杖    흰 몽둥이 붉은 곤장  
 汝盧其割    너희 살점 벗겨지리.”

메밀 종자를 착복하고 오히려 농민들을 괴롭히는 당시 부패한 관리들의 위선과 만행을 실사하였다. 이런 관리들에 대한 분노는 자연적 조건이 어려워지면 이에 비례하여 더욱 커져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豺狼’에 이르면 승냥이와 이리에 비유되기에 이른다.

豺兮狼兮    승냥이여, 호랑이여!  
 不可以語    말한들 무엇하리  
 禽兮獸兮    금수같은 놈들이여  
 不可以語    나무란들 무엇하리  
 亦有父母    사또 부모 있다지만  
 不可以恃    그를 어찌 믿을 건가

〈중략〉

父兮母兮    부모여, 사또여!  
 梁肉是啖    고기 먹고 쌀밥 먹고  
 房有妓女    사랑방에 기생 두어  
 顏如菡萏    연꽃같이 곱구나

시대가 어려울 때 부패한 관리층은 일반 백성의 일차적 원망 대상이 됨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는데, 茶山의 漢詩에서는 특히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관리층을 농민의 입장에서 전형화, 이를 통렬히 규탄함으로써 그 폐단의 시정을 국가에 요구했다.

이상에서 대략적으로 살핀 것과 같이 「田間紀事」 6수에 나타나는 전형적 인물은 서술자=전형적 인물로 볼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의 농민과 서술자≠전형적 인물인 부패한 관리로 볼 수 있다. 농민과 관리라는 두 유형의 전형적 인물은 서로 대립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당시의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

물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田間紀事」의 경우 그 인물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 인물이 농민과 관리로 형상화되었으므로 이들에 적합한 전형적 환경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들의 전형적 환경을 궁핍한 당시의 농촌의 모습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이처럼 전형적 환경에서 이루어 지는 전형적 인물의 행동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생생한 감동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본다.

東家糶~	동쪽 집이 들들들
西家糶~	서쪽 집이 들들들
熬麥爲麩	보리 볶아 죽 쑤려고
磨之粉~	맷돌소리 요란하네
有麩不篩	세질도 하지 않고
有麩不揚	밀기울도 불지 않고
粥之爲麩	그대로 죽을 쑤어
填此孳腸	주린 창자 채우지만
暖腐齏酸	씩은 트림 신 트림
爲暝爲眩	눈앞이 어질어질
日月無光	해도 달도 빛을 잃고
天地旋轉	하늘 땅이 빙빙 도네.

‘熬麩’의 1장이다. 끼니잇기가 힘든 현실 이것이 茶山이 처했던 농촌의 모습이요,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의 농촌이 당대 우리 농촌의 전형적 모습임은 현재의 독자라도 가슴이 쓰리는 아픈인 것이다. 이처럼 茶山은 가난에 시달리는 농촌을 전형적 환경으로 하여 그의 시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 2. 묘사의 디테일성

묘사의 디테일성이란 세부묘사의 사실적이고 정밀한 성격을 이룬다. 우선 茶山은 그의 漢詩에 있어 소재나 시어를 대폭적으로 넓혀 선택 사용하였다.

采蒿采蒿	다복쑥 캐네 다복쑥 캐네
匪蒿伊藪	다복쑥이 아니라 제비쑥이네
藜藿其萎	명아주 비름나물 다 시들었고
慈姑不孕	소리나물 떡잎은 그대로 말랐네
芻樗其焦	풀, 나무 다 타고
水泉其盡	샘물까지 말랐네
田無田青	논가엔 우렁이 마저 없어지고
海無處蟹	바다에도 조개, 소라 사라져 버렸네.

위에서 보는 것처럼 茶山은 여타의 漢詩作家들과는 구별되게 소재나 시어를 폭넓게 사용했다. 그리고 이런 폭넓은 소재로 장면묘사를 더욱 실감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熬熬'에 부패한 관리의 집을 묘사한 대목에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다.

棟宇隆~	으리으리 큰 집이다
園林鬱~	정원 수목 우거져서
有松有竹	소나무 대나무에
有柿有榭	감나무 돌담나무
櫛有絲衣	옷걸이엔 명주옷
閣有銅盆	찬장엔 놋그릇
牛寢其牢	외양엔 소 누웠고
雞栖于桀	헛대에 닭 깃들었네

위와 같은 시어의 대폭적인 확장은 서사시의 장르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가의 사실적 특성이 많이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묘사의 디테일화에 큰 일익을 담당한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점점 발전하여 장면의 색채적 묘사에까지 이르는데 漢詩라는 근본적 장요소로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

稻苗之生	모판에 벼모 자라
嫩綠濃黃	연한 초록 짙은 황색
如綺如錦	비단폭을 깐 것 같이

翠藪其光 푸른빛 은은하네

이러한 漢字의 함축성을 최대한 이용한 서경적 묘사는 詩經體의 4언시로 훌륭한 서사시<sup>15)</sup>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다.

요컨대, 茶山은 소재·시어의 다양화를 통한 묘사의 세밀성으로 하여 인물과 환경의 전형성을 공고히 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田間紀事」의 주제적 고찰

작품의 주제를 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더구나 6편의 「田間紀事」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를 찾기는 더욱 그러하다. 그만큼 작품 개개가 나름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田間紀事」의 주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가의 인식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다시 말하면 작가가 「田間紀事」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모습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田間紀事」전체의 주제를 규정해 본다면 '대립적 구조'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대립이라 함은 물론 전형적 농민과 전형적 관리 사이의 대립을 의미한다. 「田間紀事」에서 농민들을 궁핍하게 몰고 있는 것은 자연적 재해와 관리들의 수탈이다. 자연적 재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관리들의 수탈과 부패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물론 모든 작품에서 이런 대립적 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田間紀事」작품을 총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작가 茶山이 농민의 입장에서 서 있음은 물론이다.

「田間紀事」전체를 통틀어 직접 작가 자신이 문면에 나서서 그 생각을 보여주는 부분은 '有兒' 마지막 장 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 지적한 대립적 구조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哀此下民 슬프다. 이 백성들

15) 우리나라에는 일찌기 이규보의 '東明王編' 등 서사시의 전통이 있었다.

喪其天彝	본성마저 잃었구나
仇讎不愛	부부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慈母不慈	어머니도 제 자식을 돌볼 수 없네
昔我持斧	갑인년에 내가
歲在甲寅	암행어사 되었을 때
王眷遺孤	임금님 당부가 고아를 보살피
母俸殿屎	고생없이 하라고 부탁했건만
凡在司牧	벼슬하는 사람들
母敢有違	감히 이말 어길소나

여기에서 보면 茶山은 왕 - 관리 - 백성의 세 단계의 구분을 통해 왕의 뜻을 따라 관리가 자기 책무를 깨달아 관리와 백성 사이의 대립을 해소할 것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茶山은 당대 현실의 모순 관계의 해결을 관리들의 자기 반성에 맡겼고 여기에 그의 한계가 있다. 즉 그는 현실의 모순을 정확히 볼 수는 있었으나 그 해결의 실마리를 유교적 테두리 내에서 구함으로써 당대의 사회체제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다. 實學이 性理學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IV. 結 論

지금까지 茶山 丁若鏞의 「田間紀事」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文學思想과 작품의 寫實性을 고찰해 보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茶山의 文以載道論은 정통 성리학자들과는 다른 應事接物하는 사실적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 그는 「詩經」의 언어를 비판적 언어로 인식, 風을 풍자, 풍간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의 이런 새로운 생각은 창작의 기본적 근거를 이루었다.

셋째, 「田間紀事」에서 그는 궁핍에 직면한 농민의 모습과 부패와 허위에 찬 관리의 모습을 전형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넷째, 「田間紀事」는 詩經體의 4언 서사시로서 농민 대 관리의 대립적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섯째, 「田間紀事」의 주제적 고찰을 통해 당대 현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詩人으로서 實學者로서의 茶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茶山 丁若鏞의 漢詩는 그 종류와 양이 대단히 방대하다. 따라서 여기서의 논의는 그 한 특질의 규명 이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이상의 논의의 한계일 수도 있으며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를 기대케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뒷받침될 때 아울러 實學派 文學의 위상도 그 본연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資料編〉

- 增補 興猶堂全書(全六冊), 景仁文化社, 1969.  
 김상홍 譯, 流刑地の 哀歌, 단국대 출판부, 1981.  
 김지용 譯, 茶山 詩文選, 대양서적, 1975.  
 송재소 譯, 茶山 詩選, 창작과 비평사, 1981.

## 〈單行本〉

- 김상홍, 茶山 丁若鏞 文學研究, 단국대 출판부, 1985.  
 김옥동, 리얼리즘과 그 불만, 청하, 1989.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 사상사, 한길사, 1984.  
 김홍규, 조선후기 시경론과 시의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사회 과학원, 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 발생·발전 논쟁, 사계절,  
 1989.  
 송재소, 茶山 詩 研究, 창작과 비평사, 1986.  
 이우성,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2.  
 장사선, 한국리얼리즘문학론, 새문사, 1988.  
 조동일, 한국문학 사상사 시론, 지식 산업사, 197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 산업사, 1984  
 한우근 외, 정다산 연구의 현황, 민음사, 1985.

## 〈譯 書〉

- 스테판 코올 著, 여균동 譯,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 미래사, 1986.  
 伊東勉 著, 이현석 譯,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 세계, 1987.  
 Terry Eagleton 著, 이경덕 譯, 반영이론과 생산이론, 까치, 1986.

〈論 文〉

최신호, 정다산의 문학관, 한국 한문학 연구1, 한국한문학연구회 1976.